

해남 고향사랑기부제 6개월만에 기부자 1000명 돌파

향우 등 전국서 기부물결... 눈길끄는 기부전략 전국 모범사례로 부각

해남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6개월만에 기부자 1000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을 앞둔 이날 현재 기부자는 1043명으로, 한달 평균 170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해남 고향사랑에 동참했다.

기부 지역별로는 전남(26.4%), 경기(16.8%), 서울(16.7%), 광주(15.2%) 등의 순으로 수도권과 호남 지역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의 75%에 달해 해남에 연구가 있는 향우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기부실적 만큼 훈훈한 사연도 다양했다. 북일면 출신 LG화학 직원 한 상무는 "해남군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을 받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환

원했다.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55명,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도 26명에 달한다.

또한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자도 753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73%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에만 한정되지 않아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화산면 출신 박주석 신구대학교 교수(심크리에이티브 대표)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 상징물과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엠블럼 디자인 등을 재능기부했으며,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송지현 출신 이영길 향우는 마라톤대회에서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문구를 부착한 배에 복장을 한 채 풀코스를 완주하여 눈길을 모았다.

해남군의 우수한 모금실적은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은 매력있는 답례

품도 한몫했다.

군은 선호도가 높은 쌀, 고구마빵, 김치, 해남사랑상품권, 해남미소e상품권 등 답례품 26종을 1차 선정하고 5000원 이내의 배송료 실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해 타 지자체 대비 답례품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지역신문구독권, 해남관련서적, 제철요리체험, 소방화재안전꾸러미 등 이색 답례품을 비롯해 장류, 생활용품 등 13종을 보완 선정해 기부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부자 예우를 위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신청사 2층 역사관 벽면에 조성하는 한편 해남군 누리집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땅끝해남소식지 기부명단 게시 등 기부자들의 나



눔을 군민들과 향우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증대가 필수라는 전략으로 고향사랑기부자, 출향군민, 해남이 주소지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해남사랑국민증'을 6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해남군민증을 휴대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예우프로그램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담양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2건 안건 처리

담양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0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30대 안건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정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중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호)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집행부에 예산의 적정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2건(조례안17, 기타의안3, 결산안2)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 의결한 17건의 조례중 의원발의 조례는 7건이다.

이어서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원 철폐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정부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최용호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 일정 등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광양시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협약

전남광역치매센터·포스코와이드와 파트너십 구축

광양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포스코와이드와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와이드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앞으로 3개 기관은 치매환자 자원연계 지원강화, 치매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유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포스코와이드는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 미래로 확장해가는 회사라는 비전으로 종합부동산 서비스, 인프



라·플랜트, 인테리어, 연구시설, 포스코그룹의 공공·후생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와이드는 전문 점검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광양시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가

구에 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영 포스코와이드 시설관리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은 치매 어르신들의 거주 환경을 안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이 협력하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보성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11월까지 마을회관 3개소서 '행복한 한글 교실'

보성군은 오는 11월까지 마을회관 3개소에서 비문해 저학력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한글 교실',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성인문해(디지털)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성면 수천마을, 벌교읍 옥전마을, 노동면 대어마을에서 각 주 3회씩 총 54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행복한 한글 교실'은 평생교육기관까지 나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신청을 받아 한글 강

사가 경로당을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해 '행복한 한글 교실' 참석자들에게 가방, 컬러링북, 문구 세트 등 학습 물품을 후원하며, 경제, 역사, 문화 예술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친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법, 은행 창구 이용법 등을 다뤄 어르신들의 문해력 향상과 사회활동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정국도 기자

강진,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발대식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만생태공원에서, 강진원 군수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에 군민과 향우, 사회·기관단체들이 기증한 나무를 심어 멋진 정원을 조성하고 군민과 향우, 관광객들에게 강진만 생태공원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는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 일원의 조성 사업에 군민과 향우 등의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정원문화 홍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하나된 힘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녹색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진군 사회·기관단체장 및 읍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계각층의 나무 기증의 열의를 담은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강진=한홍수 기자

화순읍 '행복 공유박스' 인기 명소 등극

재사용 물품, 자유롭게 기부하고 나누는 명소



화순군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사용품 공유사업인 '행복 공유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 공유박스'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

들을 기부하고 공유하는 장소이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최영미) 별관 입구에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공유 가능 물품들을 자유롭게 가져와 비치하고, 비치된 물품 중 쓸만한 것은 즉석에서 담아가도 돼 재사용과 나눔의 기

쁨을 다방면으로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공유박스는 읍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위치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연중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우산, 인형, 책, 소형가전 제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행복 공유박스 설치 후 활용 빈도에 대해 "갓다 놓기가 무섭게 가져가고 있다"라며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행복 공유박스(1세트) 제작 및 설치비용은 모두 합해 193만 원이다. 180*180(가로*높이) 크기로 앵글과 아크릴 소재를 사용했고, 활용도를 고려해 재활용품(캔, 페트병) 무인 회수기와 이스트랙 수거함을 좌·우측에 배치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시크릿가든에 '얼음조각' 전시

한여름 온도가 영하 18도... 북극곰·펭귄 등 멸종위기종 9점 선배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과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크릿가든 얼음동굴에 얼음조각 9점을 8월 31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여름에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체험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금은 익숙하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북극곰, 북극여우, 펭귄 등을 얼음으로 조각하여 시크릿가든 얼음동굴에 전시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1964년부터 2-3년마다 전 세계 야생종의 멸종위험도에 따라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등 9개의 범주로 분류한 '적색목록(Red List)'을 발표



하고 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북극곰은 '위협', 북극여우는 '관심대상', 펭귄은 '준위협'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는 정원이다"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만 있는 '얼음동굴'을 찾아 혹한의 추위도 경험해 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신안1004몰' 2주년 이벤트

전 품목 20% 할인·무료배송

신안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인터넷 쇼핑몰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이번 축하이벤트에서는 20% 할인 기획전,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경품(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내용 SNS 공유시 적립금(2000원)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설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곳에서는 왕새우와 천일염, 김, 홍어, 낙지, 새우젓, 유기농쌀, 마늘, 양파, 섬초, 대과 등 갖별을 품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350여 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신안1004몰'은 계절별로 개최되는 섬꽃축제, 섬수산물축제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와 신안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각종 기획전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2만여 명의 회원 확보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순천, 역세권 스마트스토어

교육 수강생 내달 3일까지 모집

순천시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순천역세권 스마트스토어 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역세권 상인 등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역전 상인을 포함한 순천시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만들기 ▲온라인 홍보 교육 ▲상품 촬영 및 등록 교육 등 온라인 마케팅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순천역세권 스마트스토어 교육'은 모집공고일 기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조곡, 풍덕, 덕연) 내 사업자를 우선 선발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순천시 전산교육장에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4시간씩 총 13회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순천시민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에 있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역세권 현장지원센터(역전2길 16, 2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c_ysk@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섬진강 환경포럼' 개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관광양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일원에서 '우리강, 지속가능한 미래의 섬진강'이라는 주제로 '2023 섬진강 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첫째 날 민간 워크숍을 통해 섬진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날에는 섬진강 생태탐방, 토종어류 방류 행사와 함께 본 행사인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종어류 방류행사에는 생태계 건강성과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붕어와 잉어 11만여 마리를 섬진강 지류인 곡성천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신엽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 최규원 과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섬진강 유역의 현황, 물관리 방안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광양시 김재희 환경과장은 "섬진강에 대해 관심있는 관공서, 학계, 환경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기쁘다"며 "섬진강의 가치를 논의를 통해 섬진강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